

## 의류소재의 주관적인 태 평가 용어 선정에 관한 연구

김의경 · 이미식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f Terminology Describing Subjective Hand of Fabrics

Eui Kyung Kim · Meesik Lee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3. 6. 1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scale for measuring the subjective hand of fabrics. For this purpose subjective hand expression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s were reviewed. 11 pairs(9 bipolar-pairs, 2 unipolar-pairs) were selected after searching the definitions in a dictionary followed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To find out if these terminological bipolar pairs are agreed with the bipolar pairs in human sensation, a survey of fabric hand was undertaken using a scale consisted of 20 words(18 words from bipolar-pairs, 2 words from unipolar pairs). Among 11 pairs, 10 pairs except [taktakhada-poksinhada] were accepted as bipolar pair of word terminologically and sensuously. [taktakhada-poksinhada] was recognized as a bipolar pair terminologically but not sensuously. These 20 words were classified as 5 factors-surface contour, density, flexibility, dampness, and extensibility.

**Key words:** subjective hand, bipolar-pairs, unipolar-pairs; 주관적 태, 대립어, 부정어

#### I. 서 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복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의류산업의 발전에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의류산업이 소재보다는 디자인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면 현재의 의류산업은 소재의 고급화로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소재의 고급화 욕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촉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의류연구자들에 의해 직물 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여러 각도에서 태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소재나 특정가공을 한 소재들을 개발하여 이들의 성능을 수치화하기 위하여 Kawabata 외(1986)가

본 연구는 2003년 서울여자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개발한 KES-FB시스템을 이용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근 들어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태 평가치 보다 실제로 평가자들이 관능적으로 느끼는 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주관적인 태의 연구가 중요해지면서 태를 평가하는 용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주관적인 태 평가 용어는 나라, 민족, 문화에 따라 느끼는 감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Postle & Dhingra, 1989) 나라마다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 평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는 ASTM(1996)에서 규정한 태 평가 용어들을 사용하고 일본의 경우는 HESC(일본 태 평가 위원회) (Kawabata et al, 1986)에서 규정한 주관적인 태 평가 용어들을 사용해 자국에서 생산된 직물의 태를 평가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표준화된 태 평가 용어가 없고 주관적인 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성수광 외(1987)가 한복지의 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서부터였다. 초기의 국내 태 평가 연구는 우리말로 된 태 평가 용어가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의 태 평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어로 된 태 평가 용어는 우리나라 사람의 감각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 홍경희 외(1994)가 처음으로 여성용 춘추복지를 이용해 우리말로 된 26문항의 태 평가 용어와 태를 표현하는 7가지 인자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후 김경애, 이미식(1997)은 여러 종류의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감량 가공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대상으로 17개의 단어 쌍으로 된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에서 밀도감, 표면특성, 수분특성, 유연성, 온냉감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박성혜(1997)는 시판 마직물을 대상으로 마직물에 대한 태 평가 척도개발을 실시하여 26문항의 태 평가 용어를 추출하였고 표면성질, 신축성/드레이프성, 중량감, 강연성, 회복성, 수분특성, 밀도감의 7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유효선 외(2002)는 여성용 셔츠/블라우스감, 추동 여성복지, 춘하 여성복지, 추동 남성복지, 춘하 남성복지에 대하여 태 평가 용어를 개발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태 평가 용어 척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태 평가 용어들은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에 따라 같은 측감인데도 표현하는 태 평가 용어에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연구자들이 새로이 태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다시 용어추출부터 시작하여 시간, 인력, 비용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모든 연구자들과 의류업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주관적인 태 평가 용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태 평가 용어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태 평가 용어를 모두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말은 같은 의미인데도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 언어가 많은데 이 언어들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종 용도에 따른 직물의 태 평가 시 사용되는 용어는 거의 유사하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태 평가를 할 때 고려되는 태 관련 감성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도나 계절에 따라서 표현되는 감성도 유사하며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감성

을 측정하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이는 연구자들이 매번 용어선정부터 시작하여 도구를 만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재의 태 관련 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후 모든 소재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통일된 도구를 사용하면 타 연구와의 비교도 가능하고 태를 측정할 때 마다 용어추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 인력, 비용 등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특정 소재를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한 것과는 달리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모든 소재를 대상으로 정확한 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인 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관적인 태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주관적인 태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이 중 주요 태 평가 용어를 선정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용어 선정 설문을 통해 적합성이 높은 주관적인 태 평가 용어들을 제시하였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말로 된 평가척도 구성을 위한 용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국어사전, 미국의 ASTM 용어를 조사하였고 실제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여 척도 구성을 위한 용어들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미분 척도구성을 위한 대립어를 찾지 못한 경우 적합한 대립어를 찾기 위하여 용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용어추출

#### 1) 선행연구조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류소재의 태 평가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987년에서 2001년 사이에 한국섬유공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한국감성공학회지에 발표된 용어들을 조사하였다.

#### 2) 미국의 ASTM을 이용한 주요 태 평가 용어 선정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물의 주관적인 태 평가에 사

용되는 용어와 요인들을 표준화시킨 자료가 없으므로 표준화된 자료가 있는 미국의 ASTM의 자료를 이용하여 태 평가 용어와 요인들을 조사하고 각 요인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용어들을 대입시켜보고 주요 태 평가 용어를 선정하였다.

3) 국어사전을 통한 용어의 정의와 대립어 찾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 중 주요 태 평가 용어의 대립어를 찾기 위해 국어사전을 통하여 용어의 정의와 대립어를 조사하였다.

#### 4)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국내 주요 태 평가 용어를 제시하고 그 용어에 가장 적합한 대립어를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응답자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응답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FGI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류학을 전공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4명의 전문가 그룹과 의류학을 전공하지 않는 4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비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전문가그룹은 2002년 3월 22일, 비전문가 그룹은 2002년 3월 27일에 실시하였다.

### 2. 언어학적인 용어 선정

선행연구와 국어사전조사, FGI실시 과정에서 적합한 대립어를 찾지 못한 문항들의 적합한 대립어를 찾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적합한 대립어를 찾지 못했던 15문항과 FGI실시 후 적합한 대립어쌍으로 제시된 4문항을 추가시켜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합한 대립어쌍이라고 생각되면 7에 가깝게 전혀 대립어쌍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1에 가깝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5월 1일, 여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각적인 용어 선정

####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실제로 시료를 만졌을 때 느끼는 감각적인 대립어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학적 대립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립의 양극에 있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감각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립의 양극에 있는 용어를 부정어와 연결(예: 뻣

뻣하다—뻣뻣하지 않다)하여 만든 18개 문항과 대립어가 없는 [구김이 간다]와 [신축성이 있다]를 합하여 총 20개의 부정어평가척도문항을 구성하였다. 9종의 시판직물을 만져 보고 느껴지는 감각을 9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왼쪽의 단어에 가까우면 9에 가깝게, 오른쪽의 단어에 가까우면 1에 가깝게, 중간이면 5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5보다 큰 수이면 왼쪽의 단어에 가까운 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5보다 작은 수이면 오른쪽의 단어에 가까운 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각평가는 2002년 5월 10-20일 사이에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시료

직물 태 평가에 사용된 직물은 유연성, 압축성, 두께, 무게, 표면마찰, 표면요철, 열적특성, 수분특성, 신장성, 구김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판직물 9종을 선정하였다. 시판직물을 사용한 것은 특정직물이 아닌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직물에서 느껴지는 태를 평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직물의 크기는 30 30cm로 하였다. 사용된 직물들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어 선정 설문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과 ANOVA로 분석하여 적합한 대립어쌍을 찾았다. ANOVA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Scheffe로 사후검증을 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감각적인 대립어 선정을 위하여 대립어쌍의 양극에 있는 용어들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Oblimin 회전시킨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용어추출

#### 1) 선행연구조사

의류소재의 태 평가에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의 의류전문가와 비전문가들에게 만져보고 느껴지는 감각의 용어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다음, 빈도수가

높은 용어들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하여 사용된 용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류소재의 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용어

라 볼 수 있다.

1987년에서 2002년까지 한국섬유공학회지(김경애, 이미식, 1997; 나영주, 정혜원, 1999), 한국의류학회지

<표 1> 감각평가에 사용된 시료 특성

시료번호	성분	조직	두께(mm)	무게(g/m <sup>2</sup> )	밀도(5x5cm <sup>2</sup> )
1	레이온 100%	평직	0.09	73	310x186
2	견 100%	평직	0.14	78	295x195
3	면 70%/폴리에스테르 30%	평직	0.23	159	200x160
4	폴리에스테르 100%	평직	0.26	124	366x190
5	마 100%	평직	0.30	173	90x71
6	폴리에스테르 97%/스판덱스 3%	능직	0.30	246	250x140
7	견 60%/레이온 40%	변화평직	0.44	160	534x288
8	면 60%/폴리프로필렌 40%	능직	0.73	324	170x90
9	양모 100%	이중직	1.90	520	100x64

<표 2> 선행연구에 사용된 태 평가 용어와 빈도수

용어	빈도수	용어	빈도수	용어	빈도수
부드럽다	12	바삭거리다	4	힘이 있다	2
뻣뻣하다	12	성글다	4	가죽 같다	1
매끄럽다	11	촉감이 좋다	4	고급스럽다	1
두껍다	10	촉촉하다	4	구김이 잘 퍼진다	1
무겁다	10	투박하다	4	끈끈하다	1
폭신하다	10	감긴다	3	단단하다	1
거칠다	9	강하다	3	답답하다	1
따듯하다	9	반발력 있다	3	덥다	1
차갑다	9	부피감이 있다	3	매끈하다	1
가볍다	8	처진다	3	미끈거린다	1
얇다	8	흐물거린다	3	밀착된다	1
하늘하늘하다	8	기모가 느껴진다	2	반들반들하다	1
딱딱하다	7	끼슬끼슬하다	2	비닐 같다	1
보송보송하다	7	껄끄럽다	2	뻣친다	1
신축성이 있다	7	눅눅하다	2	상쾌하다	1
오돌토돌하다	7	늘어진다	2	세무 같다	1
촘촘하다	7	달라붙는다	2	소리가 난다	1
단력이 있다	7	드레이프성 있다	2	싸구려 같다	1
구김이 간다	6	사각거린다	2	야들야들하다	1
늘어난다	6	섬세하다	2	요철이 있다	1
유연하다	6	시원하다	2	우글쭈글하다	1
건조하다	5	약하다	2	차다	1
광택이 있다	5	울퉁불퉁하다	2	착용감이 좋다	1
끈적거린다	5	질기다	2	편안하다	1
톡톡하다	5	짱짱하다	2	포근하다	1
까실까실하다	4	평평하다	2	헐렁하다	1
까칠까칠하다	4	휘감긴다	2	회복성이 좋다	1

(홍경희 외, 1997; 박성혜, 유효선, 1997; 김경애 외, 1999; 신혜원, 이정순, 1999; 이선영 외, 2002; 김춘정, 나영주, 1999; 김춘정, 나영주, 2002), 한국감성공학회지(유효선 외, 2002)에 발표된 논문 중 국내 태 평가 척도를 사용한 논문은 모두 12개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모두 81개의 태 평가 용어를 추출하였다. <표 2>에 81개의 용어들의 사용 빈도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국내 논문에 사용된 용어들은 연구 목적, 사용한 시료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부드럽다], [뻣뻣하다], [매끄럽다], [무겁다], [두껍다], [폭신하다]등의 용어가 10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요인으로는 요철감, 부피감, 중량감, 밀도감, 굴곡성, 신장성, 반발감, 온냉감, 습윤감등이 태를 평가하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태 평가용어 선정

선행연구조사에서 제시된 81개의 용어 중에서 중요 태평가 용어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물의 주관적인 태 평가에 사용되는 용어와 요인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물의 주관적인 태 평가에 어떤 요인이 중요하며 또 각 요인에는 어떤 용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된 의견이 없다. 따라서 의미 파악이 쉬운 미국의 ASTM에 포함된 8개 태 평가 요인들과 우리나라 태 평가에 사용된 81개의 용어들을 연결시켜 일반적으로 태 평가에 많이 사용된 용어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미국은 ASTM D123-92, A3에 직물의 태에 관계하는 요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된 요인은 flexibility(유연성), compressibility(압축성), extensibility(신장성), resilience(반발성), density(밀도), surface friction(표면 마찰), surface contour(표면요철), thermal character(열적특성)등이다. 국내에서 사용된 태 평가 용어들은 ASTM 8가지 요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ASTM 요인에 없는 수분 특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수분과 관련된 감각은 의류

소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총 9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용어들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직물의 중요요인 9개에 45개의 태 평가 용어가 선정되었다. 45개의 용어들 중 국내 평가척도의 대표적인 태 평가 용어들을 찾기 위해 직물의 태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빈도수가 높고 일반인들의 일상대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1차적인 태 평가 용어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각 요인을 잘 설명하는 선정된 용어의 대립어는 그 빈도수가 낮더라도 선정된 용어의 대립어라고 생각되어지면 평가용어로 선정하였다. 같은 태를 나타내는 의미이지만 느낌의 강약과 대소의 차이로 달리 표현되는 용어들인 [까실까실하다], [까칠까칠하다], [까슬까슬하다]등과 [매끈하다], [매끄럽다], [미끈거린다]등은 용어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고 일반인들이 일상대화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선정하였다. 또한 특정 직물의 태를 표현하는 용어인 [가죽 같다], [비닐 같다], [흐물거리다]등과 의복의 촉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궤적성의 의미를 지닌 [상쾌하다], [답답하다], [시원하다], [끈적거리다]등의 용어와 드레이프성이나 광택을 설명하는 용어인 [드레이프성이 있다], [처진다], [광택이 있다]등과 직물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촉감이 좋다]등을 제외시켜 28개의 태 평가 용어를 선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선정된 28개의 태 평가 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사전 조사, FGI실시, 용어 선정 과정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정 한 후 사용 가능한 대립어를 찾고자 하였다.

## 3) 국어사전에 나타난 용어의 정의와 대립어

직물의 태 평가 척도 구성시의 문제점은 직물의 태를 나타내는 각 용어들의 대립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립어를 찾기 위한 1차적인 시도로 태 평가 용어로 선정된 28개 용어들의 대립어를 국어사전(한글학회, 1995; 민중서림편집국, 1997)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사전적으로 대립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는 [무겁다-가볍다], [두껍다-얇다], [따듯하다-차

<표 3> 선정된 태 평가 용어 28개

### 선정된 태 평가 용어 28개

[가볍다], [가실까실하다], [거칠다], [건조하다], [구김이간다], [구김이잘펴진다], [늘어난다], [두껍다], [따듯하다], [딱딱하다], [부겁다], [매끄럽다], [보송보송하다], [부드럽다], [뻣뻣하다], [신축성이 있다], [성글다], [습하다], [오돌토돌하다], [유연하다], [얇다], [차갑다], [촉촉하다], [촘촘하다], [탄력이 있다], [톡톡하다], [평평하다], [폭신하다].

갑다], [거칠다—부드럽다]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대립어로 잘 인식되는 것들로 실제로 주관적인 태 평가에서도 대립어로 많이 사용된 용어들이다. 이 밖에 나머지 용어들은 적합한 대립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전에서 대립어로 찾은 용어라도 응답자에게 정확하게 대립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있는지, 사전적인 의미의 대립어가 직물의 태를 표현할 때에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반면 사전에서 대립어를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물의 태에서는 대립되는 감각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대립

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의미의 용어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와 대립어라도 직물의 태 평가에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는 용어, 또한 사전에 대립어로 표시되지 않은 용어의 대립어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FGI를 실시하였다.

#### 4) FGI 실시

주관적인 태 평가 용어는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여러 감각이 힙해져 나온 일상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표 4> FGI 결과 나타난 주요 28개 태 평가 용어의 대립어와 빈도

문 항	대립어(빈도)	문 항	대립어(빈도)
부드럽다	거칠다(6) 딱딱하다(1) 뻣뻣하다(1)	오돌토돌하다	매끄럽다(6) 부드럽다(3)
뻣뻣하다	유연하다(5) 부드럽다(3)	촘촘하다	성글다(8)
매끄럽다	거칠다(5) 까실까실하다(2) 오돌토돌하다(1)	탄력이 있다	탄력이 없다(5) 뻣뻣하다(2) 구김이 없다(1) 처진다(1)
두껍다	얇다(8)	구김이 간다	구김이 가지 않는다(4) 매끈하다(1)
무겁다	가볍다(8)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4) 줄어든다(2) 팽팽하다(1)
폭신하다	딱딱하다(6) 뻣뻣하다(2)	유연하다	뻣뻣하다(7) 딱딱하다(1)
거칠다	부드럽다(4) 매끄럽다(4)	건조하다	습하다(5) 촉촉하다(3)
딱듯하다	차갑다(8)	톡톡하다	얇다(5) 성글다(3)
차갑다	딱듯하다(8)	까실까실하다	매끄럽다(4) 부드럽다(3)
가볍다	무겁다(8)	성글다	촘촘하다(8)
얇다	두껍다(8)	촉촉하다	건조하다(7) 매끄럽다(1)
딱딱하다	폭신하다(4) 부드럽다(3) 유연하다(1)	평평하다	오돌토돌하다(5) 거칠다(2) 기묘가 있다(1)
보송보송 하다	습하다(4) 딱딱하다(1) 푸석푸석하다(1) 거칠다(1)	구김이 잘 퍼진다	구김이 잘 간다(6) 뻣뻣하다(1)
신축성이 있다	신축성이 없다(4) 뻣뻣하다(3) 딱딱하다(1)	습하다	건조하다(6) 보송보송하다(1)

받아들이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립어는 어떤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태 평가 용어는 일상의 견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는 나타났지만 전문가그룹과 비전문가그룹사이에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태 평가 언어가 인간의 감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응답자의 전문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따듯하다-차갑다], [촘촘하다-성글다], [무겁다-가볍다], [두껍다-얇다] 등은 8명의 응답자들이 모두 대립어라고 하였다. [촘촘하다-성글다]를 제외한 3쌍의 대립어는 국어사전 조사에서도 대립어로 조사된 것들이었다. [촘촘하다-성글다]는 선행연구(김경애, 이미식, 1997; 김경애 외, 1999)에서 대립어로 사용되었고 사전에서의 정의도 대립되는 개념이고, FGI결과 응답자 전원이 서로 대립어로 응답하여 적합한 대립어로 채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어사전조사에서 대립어로 제시되었던 [거칠다]와 [부드럽다]는 FGI결과 여러 용어들이 대립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칠다]는 [부드럽다], [매끄럽다] 등이 대립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드럽다]도 [거칠다], [딱딱하다], [뻣뻣하다] 등이 대립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뻣뻣하다]의 대립어가 [유연하다]와 [부드럽다]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딱딱하다]로 대립어로는 [푹신하다]가 우위이기는 하지만 [부드럽다], [유연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매끄럽다]의 대립어로 [거칠다], [까실까실하다], [오돌토돌하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평하다]는 대립어로 [오돌토돌하다], [거칠다]가 제시되었고 [매끄럽다]나 [부드럽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하다]의 대립어는 [습하다]와 [촉촉하다]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보송보송하다]의 대립어로는 [습하다], [딱딱하다], [푸석푸석하다] 등이 제시되었고 [촉촉하다]는 [건조하다]와 [매끄럽다]가 제시되었다. 이 두 단어들은 각각의 용어만 보면 그 용어의 의미를 쉽게 알 수는 없고 대립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 밖에 [늘어난다], [탄력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구김이 간다] 등은 '없다'라는 부정어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있다'라고 물었으므로 '없다'라고 응답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늘어난다]는 [신축성이 있다]와 같은 의미인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탄력이 있다]는 [구김이 간다]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FGI결과, [평평하다], [늘어난다], [탄력이 있다]등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평평하다]는 [매끄럽다], [부드럽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응답하였고, [늘어난다]는 [신축성이 있다]와, [탄력이 있다]는 [구김이 간다]와 의미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용어들은 대립어를 찾는 과정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시켰다. 또한 [툭툭하다]의 대립어로 [얇다]와 [성글다]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국어사전 조사와 FGI 결과 [얇다]는 [두껍다]와 [성글다]는 [촘촘하다]와 적합한 대립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제외시켰다.

FGI결과에서 대립어라고 일치한 단어쌍은 [따듯하다-차갑다], [촘촘하다-성글다], [무겁다-가볍다], [두껍다-얇다] 등이었고 이 단어들은 선행연구(김경애, 이미식, 1997; 김경애 외, 1999)에서도 대립어로 제시된 단어들이었다. 또한 FGI결과 [구김이 간다]나 [신축성이 있다]처럼 '있다'라고 물어본 항목들에서는 '있다'의 대립어가 '없다'이므로 대립어를 부정어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 밖의 용어들은 응답자들 사이에 비슷한 빈도로 2-3가지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FGI에서 적합한 대립어를 찾지 못한 용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립어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대립어 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 2. 용어 선정

선행 연구와 국어사전 조사, FGI 실시 등에서 대립어를 찾은 결과, 적합한 대립어 쌍을 찾은 것은 4문항 ([가볍다-무겁다], [두껍다-얇다], [따듯하다-차갑다], [촘촘하다-성글다])이었고 그 외에는 적합한 대립어를 찾지 못하였다. 이들 대립어를 선정하지 못한 용어들은 적합한 대립어를 찾기 위하여 용어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와 FGI 실시 후 적합한 대립어를 찾지 못한 용어들은 평가자들이 대립어라고 의견을 제시한 용어들과 연결하여 만든 15개의 대립어쌍과 국어사전조사와 FGI를 통하여 적합한 대립어로 선정된 4문항을 포함한 총 19문항의 대립어의 적합도를 7점 척

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와 FGI실시 결과 용어들의 대립어가 2가지 제시된 것과 3가지 제시된 것이 있었는데 이 중 대립어로 2가지가 제시된 [뺏뺏하다], [건조하다], [보송보송하다]는 t 검증을 통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대립어가 3가지 제시된 [부드럽다], [매끄럽다], [딱딱하다]등은 ANOVA를 실시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용어를 찾았다<표 5>.

[뺏뺏하다]의 대립어로 [유연하다]와 [부드럽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적합도가 [뺏뺏하다/유연하다]는 5.38, [뺏뺏하다/부드럽다]는 5.3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뺏뺏하다]의 대립어로 [유연하다]를 사용한 것(김경애, 이미식, 1997)이 있었고, [뺏뺏하다]와 [유연하다]가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었다(유효선 외,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평균값이 약간 높고 선행연구들에서도 대립어로 사용되어진 [뺏뺏하다/유연하다]를 대립어로 선정하였다. [건조하다]의 경우는 대립어로 [습하다]와 [촉촉하다]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적합도가 높은 [건조하다/습하다]를 대립어로 선정하였다. [보송보송하다]의 대립어로 [습하다]와 [촉촉하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보송보송하다]의 대립어로 [촉촉하다]를 사용하는 경

우가 있고(김경애, 이미식, 1997; 김경애 외, 1999) [촉촉하다]가 평균값이 더 크기는 하지만 [보송보송하다]는 대립어의 선정에 무리가 있었다. [건조하다-습하다], [보송보송하다-촉촉하다]의 경우는 모두 습윤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송보송하다-촉촉하다]의 적합도는 4이하로 나타나 같은 습윤특성을 나타내는 대립어쌍인 [건조하다-습하다]의 6.29에 비해 적합도가 매우 낮으므로 습윤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합도가 큰 [건조하다-습하다]를 대표용어로 선정하였다.

대립어가 3가지 제시된 용어들의 ANOVA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용어는 Scheffe로 사후 검증하였다. [부드럽다]의 대립어로 [거칠다], [까실까실하다], [오돌토돌하다]를 제시한 경우 적합도는 [부드럽다-거칠다]가 6.26으로 가장 높고 [부드럽다-까실까실하다](5.00), [부드럽다-오돌토돌하다](4.53)와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드럽다]의 대립어는 [거칠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매끄럽다]는 [거칠다], [까실까실하다], [오돌토돌하다]와 연결하여 각 쌍의 대립어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매끄럽다-거칠다](5.82), [매끄럽다-까실까실하다](5.22)가 [매끄럽다-오돌토돌하다]와는 유의한 차이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끄럽다-거칠다]와 [매끄럽다-까실까실하다]사이의 적합도는 비슷한 것

<표 5> 용어선정 실문결과 대립어로 선정된 용어들의 적합도 검증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값	F 값
뺏뺏하다/유연하다	5.38	1.14	1.24	-
뺏뺏하다/부드럽다	5.32	1.35		
건조하다/습하다	6.29	1.10	4.99*	-
건조하다/촉촉하다	4.86	1.40		
보송보송하다/습하다	4.00	1.46	0.57	-
보송보송하다/촉촉하다	3.26	1.50		
부드럽다/거칠다	6.26(A)	0.92		
부드럽다/까실까실하다	5.00(B)	1.28	-	45.93***
부드럽다/오돌토돌하다	3.85(C)	1.46		
매끄럽다/거칠다	5.82(A)	1.15		
매끄럽다/까실까실하다	5.22(A)	1.39	-	11.22***
매끄럽다/오돌토돌하다	4.53(B)	1.47		
딱딱하다/푹신하다	5.00	1.43		
딱딱하다/유연하다	4.85	1.43	-	1.93
딱딱하다/부드럽다	4.44	1.54		

\*\*\* $p<0.001$ , \* $p<0.05$

A, B, C: Scheffe에 의한 사후검증결과

으로 나타났다. [매끄럽다]의 대립어로 [거칠다]와 [까실까실하다]의 정도는 비슷하지만 [거칠다]는 [부드럽다]의 대립어로 이미 선정되었고 선행연구에서 [매끄럽다]의 대립어로 [까실까실하다]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김경애, 이미식, 1997; 김경애 외, 1999), [매끄럽다]의 대립어로 [까실까실하다]를 선정하였다. [딱딱하다]의 대립어로 제시된 [폭신하다](5.00), [유연하다](4.85), [부드럽다](4.44)는 적합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3가지 용어 중 [유연하다]는 [뻣뻣하다]의 대립어로, [부드럽다]는 [거칠다]의 대립어로 선정되었고 적합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폭신하다]를 [딱딱하다]의 대립어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적합한 대립어로 선택된 대립어 쌍은 다음과 같다. [뻣뻣하다–유연하다], [건조하다–습하다], [부드럽다–거칠다], [매끄럽다–까실까실하다], [딱딱하다–폭신하다].

적합한 대립어인 경우 7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립어 쌍들의 적합도 점수는 7점 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더 적합한 대립어를 찾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응답자의 응답이 중간으로 몰리는 경향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확한 대립어로 생각되는 [무겁다–가볍다], [두껍다–얇다], [따듯하다–차갑다], [촘촘하다–성글다]등의 적합도 점수와 비교하였다<표 6>.

<표 6>의 결과를 보면, 사전적으로나 FGI 결과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견해로 적합한 대립어로 인정되는 [무겁다–가볍다]는 6.60, [두껍다–얇다]는 6.69, [따듯하다–차갑다]는 5.76, [촘촘하다–성글다]는 6.18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한 대립어 쌍은 대

립어의 적합도가 7점이라고 응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점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극단적인 값에 응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응답자들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적합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뻣뻣하다–유연하다], [부드럽다–거칠다], [매끄럽다–까실까실하다], [딱딱하다–폭신하다], [건조하다–습하다]등의 대립어쌍이 7점 이하의 적합도가 나왔지만 응답자의 응답경향을 감안 하면 각 요인들을 대표하는 대립어쌍이라고 선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1987–2001년까지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사용된 태 평가 용어중에서 태의 중요한 요인을 나타내는 28개 태 평가 용어에 대한 FGI를 실시한 후 용어선정과정을 통해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 가장 적합성이 높은 9개의 대립어쌍과 [구김이 간다], [신축성이 있다] 2개를 포함한 총 11개의 태 평가 용어척도는 <표 7>과 같다.

### 3. 선정된 용어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적합도가 높은 대립어쌍으로 제시한 <표 7>의 태 평가 용어는 선행연구조사, 사전조사, FGI, 용어선정 설문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언어학적 의미의 대립어이므로 의류소재의 태에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대립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시료를 만졌을 때 느끼는 감각적인 대립어와 언어학적 대립어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학적으로 추출된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감각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립어 척도로 구

<표 7> 태 평가 용어로 선정된 의미미분척도

척 도
뻣뻣하다–유연하다
딱딱하다–폭신하다
신축성이 있다–신축성이 없다
구김이 간다–구김이 가지 않는다
촘촘하다–성글다
두껍다–얇다
무겁다–가볍다
까실까실하다–매끄럽다
거칠다–부드럽다
따듯하다–차갑다
건조하다–습하다

성한 용어를 그 각각의 부정어와 연결(예: 뺏뺏하다—뺏뺏하지 않다)하여 만든 18개의 문항과 ‘있다’로 물어보아 ‘없다’로 대립개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어 부정어 척도로 구성된 [구김이 간다]와 [신축성이 있다]를 합하여 총 20문항의 부정어척도를 구성하였다. 대립어 척도를 용어의 부정어 척도로 구성한 것은 감각적인 평가에서도 대립어로 선정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9종의 시판직물을 만져 보고 느껴지는 감각을 9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용어들의 대립되는 개념이 감각적인 평가에서도 일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구성된 척도의 용어들을 어떠한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는지, 또 같은 요인 안에 대립되는 개념의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Oblimin 회전시킨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8>. 각 요인을 대표하는 용어는 복합적인 뜻을 내포하는 용어를 찾기 어려워 직물의 역학적 특성

과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직물 표면의 거칠성, 평활성과 밀도에 관련된 용어로 구성되었고 이 특성은 직물 표면의 요철이나 거칠기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요철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철감과 관련된 용어로 [까실까실하다], [거칠다], [매끄럽다], [성글다], [촘촘하다], [부드럽다]가 포함되었다. 고유값은 6.92이고 전체분산은 34.60% 이였다. 직물의 요철감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의복의 경우 매우 중요한 테 특성이다.

두 번째 요인은 직물의 무게와 두께, 온냉감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과 관련된 용어로 밀도감으로 명명하였다. [두껍다], [얇다], [무겁다], [가볍다], [따듯하다], [차갑다], [폭신하다]등이 속하였다. 고유값은 4.60이고 전체분산은 23.01%이었다. 직물의 무게와 두께로 인해 온감과 냉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물의 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적으로 직물의 굴곡이나 반발감에 관련된 감각을 나타내는 용어로 유연감으로 명명하였다. [뺏뺏하다], [유연하다], [구김이 간다], [딱

<표 8> 평가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재값	고유값	누적분산(%)
요철감	까실까실하다/까실까실하지않다	.87		
	거칠다/거칠지 않다	.86		
	매끄럽다/매끄럽지 않다	-.85		
	성글다/성글지 않다	.84		
	촘촘하다/촘촘하지 않다	-.82	6.92	34.60
	부드럽다/부드럽지 않다	-.75		
밀도감	두껍다/두껍지 않다	.88		
	얇다/얇지 않다	-.87		
	무겁다/무겁지 않다	.83		
	가볍다/가볍지 않다	-.80	4.60	57.61
	따듯하다/따듯하지 않다	.76		
	차갑다/차갑지 않다	-.72		
	폭신하다/폭신하지 않다	.71		
유연감	뺏뺏하다/뺏뺏하지 않다	.80		
	유연하다/유연하지 않다	-.80		
	구김이 간다/구김이 가지않는다	.74	1.71	66.14.
	딱딱하다/딱딱하지 않다	.69		
습윤감	습하다/습하지 않다	.89		
	건조하다/건조하지 않다	-.89	1.18	72.06
탄력감	신축성 있다/신축성 없다	.71	1.08	77.44

딱하다]등이 속하였다. 고유값은 1.71이고 전체분산은 8.53%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직물의 수분과 관련된 특성으로 습윤감으로 명명하였다. [습하다]와 [건조하다]가 이에 속하였다. 고유값은 1.18이고 전체분산은 5.92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직물의 습윤감이 중요한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은 신장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탄력감으로 명명하였다. [신축성이 있다]가 이에 속하였다. 고유값은 1.08이고 전체 분산은 5.38%이었다.

감각적인 대립어는 같은 요인을 설명하는 용어이면서 대립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일 것이다. 요철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 중 [까실까실하다], [거칠다], [성글다]는 양(+)의 개념으로 나타났고 [매끄럽다], [부드럽다], [촘촘하다] 등은 음(−)의 개념으로 나타나 감각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표 7>의 용어 선정 결과에서 대립어쌍으로 묶여진 단어들이 한 요인 안에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앞에서 선정한 대립어쌍을 감각적인 대립어쌍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까실까실하다]는 [매끄럽다]와, [거칠다]는 [부드럽다]와, [성글다]는 [촘촘하다]와 감각적인 대립어로 생각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밀도감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두껍다], [무겁다], [따듯하다], [폭신하다]가 양의 개념으로 나타났고 [얇다], [가볍다], [차갑다]는 음의 개념으로 나타나 서로 대립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표 7>의 용어 선정결과와 연관지어 [두껍다]는 [얇다]와, [무겁다]는 [가볍다]와, [따듯하다]는 [차갑다]와 대립을 이룬다고 사료된다. <표 7>에서 [폭신하다]의 대립어로 [딱딱하다]가 제시되었으나 이 두 용어는 같은 요인 안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다른 감각으로 인지하고 응답한 것으로 감각적인 대립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감을 나타내는 용어들 중에는 [뻣뻣하다], [구김이 간다], [딱딱하다]가 양의 개념으로 [유연하다]는 음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표 7>의 용어 선정 결과에서 [뻣뻣하다]의 대립어는 [유연하다]였으며 요인분석에서도 같은 요인에 묶여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구김이 간다]는 앞에서도 대립어를 찾지 못하여 부정어를 사용하였고 유연감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대립어를 찾을 수 없는 문항이다. [구김이 간다]라는 문항이 유연감에 속한 것은 일반적으

로 평가자들이 직물을 만졌을 때 뻣뻣한 직물은 구김이 많이 가고 유연한 직물은 구김이 적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유연성과 구김성을 같은 감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딱딱하다] 역시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대립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습윤감을 나타내는 용어에 [습하다]와 [건조하다]가 묶여 서로 대립되는 감각을 나타내는 용어로 분류되었다. 탄력감을 나타내는 용어인 [신축성이 있다]는 대립어가 없는 용어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딱딱하다]와 [폭신하다]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은 앞에서 제시한 대립어쌍의 용어가 모두 같은 요인에 속하였고 그 요인 안에서 대립되는 개념을 나타내 용어 선정 결과와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딱딱하다]와 [폭신하다]를 제외한 나머지 8쌍은 대립어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합한 대립어쌍이라고 제시한 [딱딱하다]와 [폭신하다]는 같은 요인에 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딱하다]는 유연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폭신하다]는 밀도감에 관계되는 용어로 나타나 서로 다른 감각을 나타내므로 대립어쌍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딱딱하다]와 [폭신하다]는 적합한 대립어를 찾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딱딱하다-딱딱하지 않다], [폭신하다-폭신하지 않다]의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의류소재의 주관적인 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궁금하게 생각

<표 9> 의류소재의 태 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척도

요인명	평가척도
요철감	까실까실하다-매끄럽다
	거칠다-부드럽다
	성글다-촘촘하다
밀도감	두껍다-얇다
	무겁다-가볍다
	따듯하다-차갑다
	폭신하다-폭신하지 않다
유연감	뻣뻣하다-유연하다
	구김이 간다-구김이 가지 않는다
	딱딱하다-딱딱하지 않다
습윤감	습하다-건조하다
탄력감	신축성이 있다-신축성이 없다

했던 부분인 [부드럽다]의 대립어가 [딱딱하다]인지 [거칠다]인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평가자들이 [부드럽다]의 대립어를 [거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드럽다]와 [거칠다]는 요철감을 설명하는 용어로 나타났으나 [딱딱하다]는 유연감을 설명하는 용어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GI와 용어선정 설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부드럽다]의 대립어는 [거칠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직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 요인으로는 요철감, 밀도감, 유연감, 습윤감, 탄력감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에 해당되는 용어는 <표 9>에 나타난 8개의 대립어쌍과 4개의 부정어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 IV. 결 론

선행연구조사, 국어사전 조사, ASTM과 자료비교, FGI 실시, 용어선정 설문과정을 통하여 11쌍의 적합성이 높은 태 평가 용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11개 쌍의 용어를 검증하기 위해 감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요철감, 밀도감, 유연감, 습윤감, 탄력감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딱딱하다]와 [폭신하다]는 언어적인 대립어로는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나 서로 다른 요인에 속하여 다른 감각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감각적인 대립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태 평가시에는 부정어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소재의 태 평가시 중요한 요인 및 평가 용어는 요철감(부드럽다-거칠다, 매끄럽다-까실까실하다, 성글다-촘촘하다), 밀도감(두껍다-얇다, 무겁다, 가볍다, 따듯하다-차갑다, 폭신하다-폭신하지 않다), 유연감(뻣뻣하다-유연하다, 구김이 간다-구김이 가지 않는다, 딱딱하다-딱딱하지 않다), 습윤감(습하다-건조하다), 탄력감(신축성이 있다-신축성이 없다)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김경애, 이미식, 김정화. (1999). 셀룰라아제 처리된 데님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39-1148.
- 김경애, 이미식. (1997). 감량가공된 폴리에스테로 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 II: 주관적인 태를 중심으로. *한국섬유공학회지*, 34(12), 830-839.
- 김춘정, 나영주. (1999). 견직물의 태와 감성차원의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연구: 넥타 이용 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6), 898-908.
- 김춘정, 나영주. (2000). 견직물의 물리적 자극에 따른 태와 역학적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4(3), 429-439.
- 나영주, 정혜원. (1999). 여름철 남녀 내의의 태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36(2), 186-195.
- 박성혜. (1997). 마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성수광, 고재운, 권오경. (1987). 한복지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제1보) 여자용 여름 한복지. *한국의류학회지*, 11(3), 79-88.
- 신혜원, 이정순. (1999). 인조피혁의 촉감 및 선호도-주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3(4), 541-550.
- 앳센스 국어사전. (1997). 민중서림.
- 유효선, 김은애, 이미식, 김종준, 오경화. (2002). 의류소재의 주관적인 태를 측정하는 용어 추출에 관한 연구. *감성공학회지* 구두발표 논문.
- 이선영, 홍경희, 이정순, 이예진, 김정화, 최상섭, 손진훈. (2002). 환경에 따른 여성의 의용 신합섬 폴리에스테로 직물의 접촉감성. *한국의류학회지*, 24(1), 77-86.
- 한글학회. (1995).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홍경희, 김재숙, 박춘순, 박길순, 이영선, 김재임. (1994). 여성용 춘추복지의 태에 관한 연구: 태의 주관적 평가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3), 327-338.
- ASTM Committee. (1996). *Terms related to the hand of fabrics* (ASTM D 123-92, A3). 1996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 Kawabata, S., Niwa, M., & Postile, R. (1986). Object Measurement: Applications to product design and process control. *The Textile Machinery Society of Japan, Osaka*.
- Postle, R., and Dhingra, R. C. (1989). Measuring and Interpreting Low-Stress fabric mechanical and surface properties part III: Optimization of fabric properties for men's suiting materials, *Textile Res. J.*, 59, 448-459.